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 위한 한-칠레-UN 고위급 회의 개최

- 공동개최국·UN해양특사·UN경제사회국(DESA) 참석...총회 준비체계 및 협력방안 논의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금) 공동개최국인 칠레, UN측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를 비롯하여, 피터 톰슨(Peter Thomson) UN해양특사*와 UN해양총회의 사무국을 담당하는 UN경제사회국(DESA)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제4차 UN해양총회와 관련하여 본행사의 운영 형식과 일정, 핵심메세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 UN해양특사는 UN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직위로, 글로벌 해양보호 및 SDG14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UN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양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51-773-5330)
		담당자	사무관	이찬미 (051-773-5395)